

‘효심 깊은 딸’ 60대 장애인 아버지에게 간 이식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 고민 없어”
심장재단·전남대병원 수술비 지원
전남대병원서 10시간 수술 이식 성공



간경화를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한 딸이 이식수술 후 아버지 병실을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장애와 간경화를 버티며 가족을 돌보던 아버지를 위해 20대 딸이 직접 자신의 간을 떼어 전달했다.

최근 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8년여 동안 간경화를 앓아 온 아버지 A(63)씨에게 건강한 딸 B(22)씨의 간을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됐다.

아버지 A씨가 처음 간경화 증세를 발견하고 전남대병원을 찾은 건 지난 2013년. 목 혈관이 터져 피를 토하게 되는 합병증 ‘식도 정맥류’ 증상을 겪으면서였다. A씨는 이후 건강관리에 주력했으나, 아속하게도 건강은 더욱 악화되지만 했다. 간 기능 이상으로 체내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면서 의식을 잃는 일도 잦았다.

최근 A씨의 병세가 더욱 심각해지자 딸 B씨는 용단을 내렸다. 자신의 건강간 절반을 떼어 내 아버지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B씨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라 생각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도 가족을 돌보느라 고생하신 아버지에게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가벼운 지체장애를, 어머니와 오빠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 B씨는 비장애인이다.

수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으나, 소식을 들은 심장재단과 전남대병원 봉사단체 ‘학마을봉사회’가 나서서 수술비를 지원해 줬다.

지난 11일, A씨의 간을 통째로 제거하고 B씨의 오

른쪽 간 절반을 이식해 넣는 대수술이 10시간 동안 이어졌다.

수술은 이식결핵외과 최수진나 교수와 김효진 교수가 집도했으며, 이식결핵외과 정홍성 교수, 유영섭 전임의, 정서원-김성은 전공의가 함께 했다.

B씨의 경우 젊은 여성임을 고려해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복강경 간절제술을 시도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開腹)을 하는 대신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활용해 수술,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B씨는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해 지난 24일 퇴원했다. B씨는 3~6개월 내로 간을 90% 이상 회복하게 된다. A씨 또

한 건강을 회복했으며 31일 퇴원한다.

A씨는 “가족과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빨리 건강을 회복해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술을 집도한 최수진나 교수는 “수술 이후 A씨와 B씨가 서로를 품에 안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릴 때 의료진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부녀 모두 의료진의 뜻에 잘 따라준 덕에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이제 딸의 간을 품고 살아가는 만큼 반드시 급중하고, 의료진 지시에 잘 따르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다”고 웃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광함평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을 벽화그리기 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지사장 황규진·왼쪽에서 세번째)는 영광군(군수 김준성·네번째)과 마을 벽화그리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협약은 관내 마을 벽화그리기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거환경 개선대상 마을 발굴·선정 ▲지역사회 예술인 등 자원봉사자 인력 모집·벽화그리기 소요 재원 마련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황규진 지사장은 “이번 협약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이 목적으로 지속적인 지역 발전에 한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준성 영광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의 벽화그리기 사업이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행복 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광산구 복지관에 방역물품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양진식)는 30일 광산구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2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제공>

‘미스터 클린’ 로제 전 IOC위원장 별세...도핑·뇌물 근절 앞장

자크 로제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별세했다고 IOC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향년 79세.

2001년부터 2013년까지 IOC를 이끈 로제 전 위원장은 제임 중 도핑, 뇌물 근절에 힘써 ‘미스터 클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벨기에 요트 국가대표로 1968년, 1972년, 1976년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 그는 럭비 국가대표로도 활

약했다.

올림픽 출전 선수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 IOC 수장에 오른 그는 사실 스포츠의학을 전공한 정형외과 의사다.

1991년 IOC 위원에 선출된 그는 의무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약물 퇴치 운동에 앞장섰고, 1998년 동계 올림픽 유치 뇌물 스캔들이 터졌을 때도 개혁을 주도

했다.

IOC 입문 10년 만에 위원장 자리에 오른 그는 부정부패, 약물,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웃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미치지 않고서(재)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슈 픽 썸과 함께 스페셜 50 1020, KBS를 말하다 55 UHD 스테라(재)	00 경찰수업(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생생정보 스페셜(재) 55 다큐멘터리 3일(재)	00 12 MBC 뉴스 20 크리켓방 50 뽀뽀뽀 좋아(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박미선과 돈위리 돈해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2020 도쿄 패럴림픽		50 2020 도쿄패럴림픽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브레드 이발소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백종원 클래식(재)	55 5 MBC 뉴스	00 섬마을 할매(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아무튼 출근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테마스페셜-수목비엔날레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웃집 찰스 300회 특집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경찰수업	00 아무튼 출근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육탄방의 문제아들	30 PD수첩	00 흥천지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0 100분토론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2020 도쿄 패럴림픽 하이라이트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사랑의 가족(재)	5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재)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요태3	12:10 바닷가 사람들	19:05 머털도사
07:15 출동! 슈퍼핑크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최고의 요리비결 공방
07:30 숲속 배달부 빙빙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극한직업
07:45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딩동댕 유치원	15:25 클래식e	<별볼도>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사람 향기 느껴보길, 피카스틴 GT로드>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6:00 마사와 곰	21:30 한국기행
09:00 뽀로로 동화나라	16:15 개구쟁이 조이	<우리는 백두대간에 삽니다 2부 고개 넘어 내 삶>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덕이	22:45 건축탐구 - 집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1일(음 7월 24일辛亥)

<p>36년생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48년생 앞뒤를 잘 가려서 운용하자. 60년생 대체적인 골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72년생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실행해야 작용력이 크다. 84년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보인다. 96년생 운색하러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15, 55</p>	<p>42년생 무리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54년생 복잡다단한 국망이니 부지런히 행거 재대로 돌아갈 것이다. 66년생 원래부터 존재했던 본질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 옳다. 78년생 훌륭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자. 90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02년생 능률이 오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87</p>
<p>37년생 털어 놓고 상의해 본다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49년생 보다 큰 행보로 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61년생 옛 것으로부터 행운이 따를 수다. 73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85년생 중지를 모아서 대처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유익하다. 97년생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옹이하다. 행운의 숫자 : 39, 72</p>	<p>43년생 적극적으로 이행해야만 목적에 부합하리라. 55년생 힘든 들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리라. 67년생 절제 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79년생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귀중한 기회를 갖는다. 91년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형국이다. 03년생 정만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0, 74</p>
<p>38년생 기다렸다는 듯이 때맞추어 나타나리라. 50년생 앞조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입항할 수 있느니라. 62년생 필요하면 소급해서 적용해도 아무 탈이 없느니라. 74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86년생 문제를 제 기할만한 문제점이 보인다. 98년생 집착을 버린다면 훨씬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5, 50</p>	<p>32년생 편리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44년생 무시한다면 위험에 직면한다. 56년생 실제효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68년생 타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살펴볼 일이다. 80년생 다양성의 확보는 무궁한 발전의 여지를 제공하리라. 92년생 주체에 따라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53</p>
<p>39년생 절차대로 투정하게 처리함이 나올 것이다. 51년생 모름지기 승리의 여신은 노력하는 이를 사랑 하느니라. 63년생 처음부터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75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너무나 공허하겠다. 87년생 기자회견하는 기쁨이 매우 클 것이나. 99년생 급변하는 도량이니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47, 86</p>	<p>33년생 손에 땀을 쥐며 지켜봐야 할 일이다. 45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57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구조물이 들어설 수 있다. 69년생 도중에 참불을 꺼내려는 이가 나타날 수 있다. 81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93년생 의욕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실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3, 69</p>
<p>40년생 영종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52년생 연결 되어 있으니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64년생 무심코 할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삼사일언하는 것이 옳다. 76년생 길보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88년생 지난날의 공적으로 인해서 열렬히 환영을 받는다. 00년생 단순하게 여긴다면 복병을 만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4, 79</p>	<p>34년생 앞면에서도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46년생 전혀 도음이 되지는 않는다. 58년생 머뭇거리지 말 것이며,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70년생 만사를 제쳐 두고 우선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82년생 다양성의 확보는 무궁한 발전의 여지를 제공하리라. 94년생 성공이 눈앞에 와 있으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행운의 숫자 : 34, 81</p>
<p>41년생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 53년생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생산적인 모양새를 도모하는데 일조하리라. 65년생 망심 한다면 상대의 시합에 빠져들 수 있느니라. 77년생 집착을 버리고 진용을 정비하는 것이 이득이다. 89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01년생 억지르도록 실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84</p>	<p>35년생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본다. 47년생 자제히 알지 못한다면 나서지 말라. 59년생 경색국면으로 접어드는 기세가 역력하다. 71년생 불가항력적인 고역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겠다. 83년생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95년생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자. 행운의 숫자 : 48, 61</p>